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관원과 어린이안전재단이 손잡고 서울·수도권 지역 유치원생 승강기 안전교육 시범 실시

9월 19일 구립수유 6동어린이집에서 산자위 오영식의원이 초빙 강사로



미취학(6-7세) 어린이승강기안전의식개선을위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승관원)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하어린이재단)이 어린이승강기안전순회교육을 갖는다.

승관원은오는9월 19일(수)부터두 달간어린이재단과손잡고서울·경기지역에생영되고있는유치원중 일부를선정해승강기안전교육을실시한다

고밝혔다.

이번승강기안전교육은교육대상자가 미취학어린이임을감안해어린이안전교육에전문성을갖고있는어린이재단소속의전문강사가참여하게되며, 지역명사를초청해승강기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을높일방침이다.

주최측은9월 19일(수) 오전10시30분부터서울구립수유6동어린이집(원장공정숙)에서 순회교육을시작한다고밝히고이번 교육에승강기안전정책과관련이깊은국회산자위오영식의원을초빙해, 사회지도층명사들이어린이안전교육의중요성을직접체험케한다는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엘리베이터와스칼레이터는무엇일까요'부터시작해, 그림을통해손쉽게승강기

안전규칙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개부분과 올바른 승강기 이용 방법을 전달하는 마무리 단계로 꾸몄다.

이경결 승관원 안전교육 팀장은 “어린이들보다 차보다 많이 이용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고 말하고 “어린이 교육 현장

에 사회 지도층이 직접 참가하여 그 중요성을 실감케 함으로써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관원은 최근 미취학 어린이 교육용으로만 화 그림책을 발간하였으며, 지난월 25일 한국 어린이 안전재단과 어린이 승강기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 기술표준 2007. 10

“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꼭 잡고, 걸거나 뛰지 맙시다 ”

승관원, 도시철도공사와 홍보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승강기안전관리회 하승관원은

오는 9월 6일(목) 오후 2시에 용답동 소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 4층 대회의실에서 승관원 홍성계 기획관리사와 도시철도 이경호 영업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스컬레이터 한 줄타기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 설치한 지하철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 배포하는 등 안전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에스컬레이터 한 줄타기 개선을 위해 지하철 5~8호선 역사 내 설치된 PDP, 차량 내부 모니터 및 모서리 광고, 게시판 등의 홍보 시설인프라를 도시철도공사에 무료로 제공하고, 승관원 관련 홍보

보물 제작등을 지원한다는 내용 담겨있다.

그동안승관원은에스컬레이터안전사고빈도가 가장 높은 7~9월 달을에스컬레이터안전사고예방중점홍보기간으로연정하고, 지하철~8호선역사내에 설치된에스컬레이터에안전규칙스티커, 홍보포스터 및 플래카드부착하는한편, PDP, 프로젝트를이용해안전캠페인용동영상을방영해왔다.

또한승관원은에스컬레이터전도사고대부분이한줄타기로인해 발생한다는논문 및 통계자료를토대로' 안전세미나를 개최하는한편, 이용자안전사고예방을위한노력들을강화해왔다.

양기관은이번협약을시작으로에스컬레이터한줄타기문화개선을위해 적극적인홍보업무네트워크

를 구축하는한편, 홍보업무협약의구체적실행을 위한 실무자로구성된' 실무협의체' 발족할예정이다.

승관원홍성계기획관리사는“ 에스컬레이터한줄타기는이용자가좌측으로걸거나될 수 있는잘못된 문화로정착됐다면서 한줄타기문화를개선하지않고서는이용자에스컬레이터안전문화를확보하기가 힘들다고설명했다.

한편, 승관원국제교류협력위원회는'조사결과유럽·일본·홍콩·중국·싱가포르등 대부분의국가에서는에스컬레이터한줄타기를중단했거나, 안전사고발생의 문제로인해 핸드레일을잡고디딤판에서서이용할것을권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기술표준2007. 10



FITI시험연구원

AATCC 국제숙련도 시험평가 결과 최우수 시험기관 인정

FITI시험연구원장심우정이 지난2007년5월부터 AATCC USA, SGS, Intertek 등 세계35개 전문시험기관을 대상으로 AATCC 주관 하에 실시된 섬유제품의 방수(Water Resistance) 및 발수성(Water Repellency)에 대한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결과, 최우수 시험기관(Certificate of Excellence)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코팅 직물에 필수적인 시험 항목인 스프레이 시험(Spray rating)과 내수도(Hydrostatic Pressure Test)에서는 참여 기관 중 최고의 성적을 받는 쾌거를 거두었다.

FITI는 그 동안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시험 품질의 국

제 수준도 약을 목표로 자체적인 품질 향상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자의 전문 분석 능력 제고와 첨단 시험 기기의 지속 확충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그 결과 한국인정기구인 KOLAS로부터 방수 및 발수와 관련한 시험 항목 등에 대한 인정을 받고, 최근에는 모섬유기관 최고 권위의 CCMI로부터 국내 유일의 CCMI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AATCC로부터 섬유 시험에 대한 국내 유일의 교육기관으로도 지정 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이번 숙련도 시험 평가에는 SGS, Intertek 등 세계적인 시험기관들과 당당 경쟁하여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는 영예를 기록하였다.

| 기술표준 2007. 10

구현진 박사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

FITI시험연구원장심우정 신뢰성평가센터 책임연구원 구현진 박사(40)가 세계 3대 인명사전에도 두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구현진 박사는 미국 마르퀴즈사의 후즈후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 2007, 2008년도판에 연속 등재된 데 이어, 후즈후인엔지니어링앤사이언



스(Who's Who in Engineering and Science) 2008년도 판과영국의국제인명센터IBC에서 발행하는 '21세기 대표 지성 2000인'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2007

년도 판에 등재될 예정이어서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되는 진기록을 올렸다.

구 박사는 인하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섬유대학에서 섬유공학과 통계학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FITI 신뢰성평가센터에서 산업용 섬유소재의 신뢰성평가 분야 연구를 담당하면서 토목섬유 및 자동차용 섬유소재의 신뢰성

평가를 포함한 신뢰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약 10여 편의 SCI 논문과 다이모스, 효성 등 産研협력과 제 1차 산업자원부에 서 지원하는 신뢰성 향상 과제 수행하는 등 ISO TC 38(섬유)과 TC 221(토목 섬유) 분야의 국제 표준 전문가로서의 업적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2006년도에는 부품소재 기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FITI 심우정 원장은 3대 인명사전 중 한 곳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힘든 일임을 감안하면 FITI 시험 연구원의 연구원이 2년 연속으로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연이어 등재되는 것은 우리 연구원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대단한 쾌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번 등재는 우리 FITI 시험 연구원의 인적 자원이 세계적인 수준에도 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연구진과 최첨단 시험 분석 설비 등 세계 유수의 시험기관과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기술표준 2007. 10

이승욱 부원장 선임



FITI 시험 연구원은 지난 9월 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제도팀의 이승욱 서기관을 부원장으로 선임했다. 9월 1일자로 부임하는 신임 이승욱 부원장은 올해 58세로 단국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공업진흥청과 중소기업청을 거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제도팀에서 기술서기관을 역임하였다.

| 기술표준 2007. 10

효성기술원과 상호업무협약 체결



* 의류용, 산업 용섬유분야에 서급제수준의 시험, 연구개발능력 을 보유하고 있는 FITI 시험연구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신소재·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FITI 시험연구원의 심우정 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섬유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미래 섬유산업 발전에 핵심 기술 개발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양전문 연구원의 장점 및 노하우가 결합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FITI 시험연구원(원장 심우정)과 효성기술원(원장 성창모)이 10월 1일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신소재 고부가가치 제품 연구개발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로 양 기관은 공동 연구 및 위탁연구 수행, 연구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연구인력 교류, 기술이전 등 섬유산업의 신뢰성 기술 발전과 신소재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날 업무협약 정식에서 효성기술원 의성 창모 원장은

한편 효성기술원은 지난 1971년 창립된 전문 민간 연구기관으로 금번 FITI 시험연구원 을 비롯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AIST NNEC 등 국내 유수의 인증평가기관들과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FITI 시험연구원은 신뢰성 본부를 중심으로 신뢰성 평가, 시험평가 방법의 개발, 원인 분석 및 표준화 연구를 통하여 지식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시험분석평가 업무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어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은 국내 섬유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이상적인 협력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술표준 2007. 10]